

1833-9030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895신동동 344-22 한광대학교병원 5층 1호
 TEL: (063) 859-2400 ~ 2410 FAX: (063) 859-2414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17년 11월 20일 월요일 (음 10월 3일) 제1932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서남대, 사실상 폐교... 200여명 실직 위기

〈교수·직원 등〉

교육부, 20일간 행정예고
 도내 정치권·행정·학교
 시민단체 노력 '물거품'
 대표 사학비리 대학 '오명'

정부가 사학비리로 논란을 빚었던 남원 서남대학교에 대해 폐쇄 절차에 들어가는 등 사실상 폐교가 결정되면서 교수와 직원 등 200여명의 대학 구성원들이 실직 위기에 내몰렸다.

또 '학교 정상화'를 위해 동문서주 뛰어다녔던 전북 정치권과 행정, 학교 측, 시민단체 등의 노력도 모두 물거품이 될 공산이 커졌다.

지난 17일 교육부와 서남대 등 관련 기관에 따르면 정부는 서남대 폐쇄 방침을 확정하고 후속 절차로 20일간 행정예고에 들어간다.

교육부는 학교법인 서남학원과 서남대에 12월 7일까지 행정예고를 한 후 법인과 대학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청문 절차를 진행한다. 청문 절차가 완료되면 내달 중으로 최종 대학폐쇄 명령을 내리게 된다. 서남학원은 서남대 외 다른 학교를 운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법인 해산 명령도 포함된다. 대학폐쇄, 법인 해산 명령과 함께 2018학년도 학생모집 정지 조치도 이뤄진다.

이처럼 교육부가 폐쇄 방침을 사실상 확정하면서 서남대 구성원들은 그야말로 거리를 내몰릴 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교육부를 강력 비판했다.



하반기 공공기관 직무인턴 오리엔테이션

지난 17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송하진 도지사, 하반기 공공기관 직무 인턴 78명과, 공공기관 멘토 22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 하반기 공공기관 직무인턴 오리엔테이션 행사를 가졌다. (관련기사 2면)

현재 서남대의 경우 교수 153명을 비롯 직원 등 약 210명이 근무를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서남대 인수를 추진하고 있는 한남대를 비롯해 다른 기관에서 재정확보(333억원선)를 하지 못하게 되면 학교는 결국 문을 닫게 되는데 현실적으로 재정확보가 극히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서남대 관계자는 "재정 확보를 하지 못해 학교가 문을 닫게 되면 일순간에 수백명의 직원들이 실업자가 돼 거리로 나오게 된다"며 "직원들 가족까지 포함하면 약 1000명 가량이 생계에 차질을 빚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대학은 교육부에서 파견한 임시이사 체제가 돌아가고 있는데 이는 교육부에서 관리를 한다는

의미"며 "그동안 교육부는 나팔라 하다가 이제와서 학교 문을 닫는다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이다"고 꼬집었다.

또 "학교 구성원의 잘못이 아닌 설립자 개인의 잘못된 데 교육부는 대책을 마련해주지도 않았다"며 "업체(기업)들도 부도가 날 경우 회생절차를 통해 인수합병 등을 하는데 우리는 이런 기회조차 없다"고 토로했다.

한편 서남대는 설립자인 이흥하 전 이사장이 교비 333억원을 횡령한 사실이 2012년 교육부 감사에서 적발됐다. 또 올해 특별조사 결과 교직원 임금 체불액 등 부채가 17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나는 등 대표적 사학비리 대학으로 오명을 남겼다. /정해은 기자

도내 고교 무상급식 전면 추진

내년부터 632개 학교 21여만명 학생이 지원 혜택

전북도는 2018년부터 시·군·도 교육청과 협의회 고등학교를 포함한 전북도내 학교 무상급식 지원을 전면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지난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2011년 초등학교, 2012년 중학교에 무상급식지원을 도입한 이래, 7년만에 도내 632개 학교, 약 21만명, 전 학생이 무상급식 지원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고교 무상급식 실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일부 시·군에서 개별적으로 고등학교 무상급식을 추진함에 따라, 시·군·간, 도·농

간 고등학교 무상급식 차등지원이 우려되는 상황을 종식하기 위함이다.

전북도는 그동안 무상급식 지원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지원단가를 2017년, 2018년 2년 연속 200원을 인상, 고등학교 급식지원의 추진을 검토해왔다.

도 관계자는 "전북도가 앞장서서 이번 고등학교 무상급식 전면 추진을 계획함에 따라, 학부모의 큰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며,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시·군, 교육청과 긴밀한 협조를 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김진성 기자

서남대 의대정원 타 대학 이동여부 '관심사'

내년도 입학정원 49명 '허공에 붓 든 상태'

지난 17일 서남대가 폐지되면서 입학정원 49명인 서남대 의대도 함께 문을 닫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교육부와 논의를 통해 의대 정원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논의에 나설 예정이지만 빨라야 2019년도 입시까지 1년여간 시일이 지체될 전망이다.

서남대의 경우 복지부가 이미 지난 4월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의

학교육 평가결과에서 '불인정' 판정을 내리며 2018년도 신입생부터 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된 상태다.

다만 재학생은 평가결과가 나오기 전에 입학했기 때문에 이같은 조치와 상관없이 국가시험 응시자격이 부여된다. 교육부는 현 서남대 재학생을 인근 대학의 유사 학과로 편입 조치할 계획이지만 학교 사정에

따라 선발 인원이 제한될 수 있어 학생 피해가 불가피하다.

특히 내년도 입학정원 49명이 허공에 붓 든 상태다.

현재 전북대, 원광대 등에 입학정원을 배분하는 방안과 이번 기회에 전남에 새로 의대를 설립하자는 안, 의료취약지역 의사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공공의료 전문의대 설립안 등이 난무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정해진 내용은 없는 상태다. /정해은 기자

도, 공공 빅데이터 우수사례 '대상' 수상

전북도는 지난 16일 행정안전부의 '2017년 공공 빅데이터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참여해 유망 스타 프로젝트 분야에서 '대상'을 수상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소방본부 장진영 주무관이 발표자로 나서 전북 사례의 우수성을 알리면서 국민평가단의 높은 평가를 얻어 대상을 거머쥐게 되었고 행정안전부장관상 표창과 상금 10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전북도는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구급차 배치·운영 최적화 모델'을 주제로 경진대회에 참가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소방력을 재배치하여 현장 도착 시간 단축 및 골든타임 확보의 필요성을 발표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도 관계자는 "이번 경진대회를 통해 전북도의 우수한 사례가 타 지자체까지 널리 보급되어 국민의 소중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주민소통 없는 폐기물 고형연료 발전시설 설치 반대"

고미희 전주시의원 5분발언



최근 논란의 중심에 선 전주시 팔복동에 위치한 폐기물 고형연료(SRF) 발전시설' 설치와 관련, 전주시가 책임을 갖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주시의회 고미희 의원(사진)은 지난 17일 제346회 제2차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대기오염 유발 비선호시설에 대한 공론화 과정은 필수"라며 "이번 폐기물소각 발전시설과 관련한 전주시의 책임을 통감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고 의원은 "이미 전주시는 미세먼지 나쁨 비율이 전국 최고 수준에 도달하고 있어 미세먼지, 환경오염 등에 대한 시민의 걱정과 우려는 매우 크다"며 "전주시는 늦었지만 대표적인 비선호시설인 폐기물 소각 발전시설에 대한 공론화를 통해 시민이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전주시는 지난 9월 29일 A업체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장을 관할 경찰서인 전주 덕진경찰서에 접수하고, 공사중지와 원상회복명령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A업체는 전주시의 행정처분에 "부당하고 재산상의 침해가 우려된다"며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본안소송을 냈다. /김민근 기자

매일 INDEX
 4면 -전주시내년도 예산편성

국립전주대학교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

전주, 한눈에 반하다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